

## 유아의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

### Preschoolers' Adjustment Behavior\*

-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

부산 디지털대학교  
시간강사 이 영 숙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조 교 수 서 소 정

Pusan Digital College  
Part-time Lecturer : Lee, Young-Sook  
Kyunghe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eo, So-Ju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ich variables of interest predicted preschoolers' adjustment behavior. The variables of interest in this study were: 1)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2) children's temperament 3) mother's parenting attitudes and 4) children's adjustment behavior. The study subjects were 365 preschooler-mother pairs. SPSS 11.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a child's age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 of the preschoolers' adjustment behavior. Also, gender and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were found to be predictive in the preschoolers' adjustment behavior. Finally, patterns in regression results differed by the preschooler's gender.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in light of the study results.

**주제어(Key Words):** 적응행동(adjustment behavior), 기질(temperament),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

Corresponding Author: So-Jung Seo, Child & Family Studies Major,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Seoul, 130-701  
Tel: 82-2-961-0947 Email: seosojun@khu.ac.kr

\* 이 논문은 2005년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1. 서론

적응(adjustment)의 개념은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왔다.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으로서의 적응은 생명체를 유지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며 통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Lazarus, 1976), 또한 적응은 기존의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어 왔다(김승국, 1990). 특히 유아의 적응행동은 Ladd와 Price(1987)의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볼 때, 유아의 연령과 속한 집단에서 기대되어지는 자립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성 적응준거와 유아교육기관내의 적응준거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원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회성 적응준거는 교실에서의 또래와의 관계, 교실내의 상호 개인적인 행위 및 과제 수행에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고, 유아교육기관내의 적응준거는 새로운 환경 내에서 또래와 관련하여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적 불안과 회피의 정도를 의미한다(원영미, 1990 재인용; 송진숙, 2004).

현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수는 541,603명이며(교육인적자원부, 2005),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는 989,390명에 달한다는 통계자료(여성가족부, 2006)를 감안해 볼 때, 많은 수의 유아들이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부모 이외의 대리양육자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이에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가 부모 이외 다른 기관에서 교사나 또래와 최초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다(안선희, 2002). 하지만 부모와의 격리 불안감, 낯선 상황과 사람, 또래 및 집단관계에서의 규칙 준수에 대한 요구 및 기대감으로 인해 유아들은 여러 가지 긴장과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송진숙, 권희경, 2004). 이러한 경험들은 이후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성공적인 기관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유아들의 기관적응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아기의 성공적인 기관적응은 유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만족감,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감 형성과 같은 유아기 이후의 성장과 발달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며(송진숙, 2004; 송진숙, 권희경, 2003; 안선희, 2002), 부모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타인과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이 아닌 낯선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여,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또래보다 미숙한 행동을 보이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신체적, 언어적, 물리적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송진숙, 권희경, 2003;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2). 또한 몇몇 중단 연구에서 유아기의 부적응 행동은 이후의 공격성, 문제행동, 비행등의 선행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add & Price,

1982; Shaw, Keenan & Vondra, 1994), 반면에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유아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송진숙, 권희경, 2003), 이후 초등학교 생활에 성공적인 적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기철, 1999; 이희영, 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적응의 문제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적응과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유아의 성과 연령,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및 교사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학력, 소득, 경력), 그리고 교사-유아와의 관계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인 유아특성(성별, 연령, 취원기간, 기질)과 가정환경변인(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적응에 관해서 유아 개별 특성인 유아의 성별, 연령 그리고 교육기관의 유아의 교육경험 등은 유아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김민아, 이재신, 2004; 원영미, 1990; Klein, 1982). 일반적으로 유아의 연령이 적을수록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는 유아의 전반적인 적응상태가 성숙의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lein, 1982). 원영미(1990)는 취원 시점에서 유아의 연령은 유치원에서의 적응과 관해서 중요한 변수라고 논의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가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 성향이 강해져서 유치원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상반된 보고도 있다(김민아, 이재신, 2004). 이러한 유아의 연령과 적응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유아가 속한 다양한 집단상황의 특수성(Head Start, 일반 유치원 등)을 간과할 수 없다는 Klein(1982)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치원에 있는 유아와 Head Start 프로그램에 속한 유아를 비교한 Klein(1982)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상에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Head Start에 속한 유아인 경우 연령이 적은 유아보다는 연령이 많은 유아가 적응력이 더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집단상황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입증한다.

유아의 성이 교육기관 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들(고명순, 1997; 원영미, 1990; 임말자, 최경순, 2003; 현온강, 이현정, 1999)을 요약해 보면 일반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아가 사회적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아가 여아에 비해 취원 초기 유치원에서 적응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원영미, 1990). 특히,

유아의 적응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인 사회성과 사회성 하위변인 중 사교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협동성, 자기표현성 등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고명순, 1997)는 남아가 여아보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러한 성별에 따른 적응의 정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원영미, 1990).

부모와의 격리불안과 낯선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적응하는데 있어 유아의 취원기간은 유아의 적응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는 유아 자신에 대한 만족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같은 유아기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남영, 신유림, 2001; 안선희, 2002; 임말자, 최경순, 2003). 하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취원기간과 적응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다. 유아가 타인 양육자 또는 보육시설에서 타인양육을 경험한 보육기간이 길수록 사회, 정서적 문제행동이 적었다는 보고(조혜진, 이기숙, 2004)와 유치원 교육기간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조망수용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박은미, 1995; Aureli & Procacci, 1992)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유치원 적응행동에는 이전의 교육경험이 무관하다고 밝혀진 결과(Brown & Hunt, 1961; Marturano, 1981)도 있다.

유아의 개별 특성 중 타고난 기질은 유아의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까다로운 유아가 순한 유아에 비해 적응력이 낮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도 보고된 바가 있다(김미라, 1995; 김영희, 1996; 이희선, 1994; 임말자, 최경순, 2003; Bates, Maslin, & Frankel, 1985; Thomas & Chess, 1977; Rubin, Burgess, & Dwyer, 2003).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유아의 적응행동에 관련된 유아의 개별 변인들 중 유아의 기질은 성별이나 연령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질을 구성하는 차원 중 이전의 연구에서 활동성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밝힌 결과들(Klein, 1982; Parker-Cohen & Bell, 1988)이 있는 반면 활동성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보고(김영희, 1996; 임말자, 최경순, 2003; 홍계옥, 2001)는 유아의 적응과 관련한 활동성 부분에 있어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아의 적응과 관련있는 가정환경변인으로서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유우영, 이숙, 1998), 어머니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송진숙, 2004; Hurlock, 1987), 그리고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유아는

더 긍정적인 적응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독립성 권장태도가 유아의 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정에서 독립심이 강한 유아로 자랄 경우 유치원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원영미, 1990)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일관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유우영과 이숙(1998)의 연구 및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유치원에서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한 권일선(1994)의 연구결과 역시도 가정환경 자극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특히 유아의 적응행동에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양육행동, 양육태도와 같은 복합적인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의(권일선, 1995; 김영희, 1996; 송진숙, 2004)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는 유아의 적응행동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유아의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을 따로 분리하여 연구하였기에 유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아의 적응행동 유형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긍정적 적응행동을 사회 및 정서발달 측면에만 국한지어 평가하여 왔다. 유아기라는 특정 시기에 사회적으로 기대되어지는 독립적, 자립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적응행동개념을 사회, 정서면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폭넓은 영역에서 관련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변인 중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유아의 적응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 유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구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유아의 적응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이러한 관련성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규명하여 유아 성별에 따라 긍정적인 적응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 및 어머니의 특성, 유아의 적응행동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적응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적응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양상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4세, 만 5세이상 6세이상 유아로 선정하였다. 발송된 설문은 서울과 서울 근교지역 총 1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70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63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문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한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356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유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99명(56.2%) 여아가 157명(43.8%)이었으며, 연령은 만4세 이하 유아가 45명(12.9%), 만5세 유아가 163명(45.8%), 만6세 이상의 유아 148명(41.4%)이었다. 한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취원을 받은 기간에 따라서는 2년 이하인 경우가 124명(34.8%), 3년에서 4년인 경우가 169명(47.7%), 5년 이상 7년 이하인 경우가 63명(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 관련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의 경우 30세 이하의 어머니가 27명(7.4%), 31세에서 35세까지의 어머니가 157명(43.8%), 36세 이상의 어머니가 116명(32.9%)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어머니가 193명(54.2%), 대학교 졸업 이상의 어머니가 127명(35.3%)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취업모가 216명(59.7%)으로 취업모 137명(39.2%)보다 다소 많았다.

<표 1> 연구대상 유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56)		
변 인	구 분	빈도(%)
유아의 성별	남아	199
	여아	157
유아의 연령	만4세	45
	만5세	163
	만6세	148
유아의 취원기간	2년이하	124
	3년~4년 이하	169
	5년~7년 이하	63
어머니의 연령	30세이하	27
	31~35세	157
	36세 이상	116
	무응답	56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93
	대졸이상	127
	무응답	36
어머니의 취업유무	취업모	137
	비취업모	216
	무응답	3

### 2. 연구절차

질문지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세 번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양육태도, 그리고 유아의 기질이 영유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모형의 내용타당성(face validity)을 인정받았다.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3곳에서 50명의 어머니들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크롬바흐알파와 Cronbach' Alpha)를 산출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Schaefer와 그의 동료들(1959)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도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역·수정한 이원영(1983)의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MBRI 척도는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28개의 문항을 다시 5단계 평정척도로 되어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154개의 하위문항이 있다. 본 도구는 양육태도를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로 제한하고 각각 12문항씩 총 48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질문지 문항의 내용은 같으나 응답과정상에 어머니들이 서로의 응답 내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순서를 각각 다르게 배열하여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련된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의 4가지 상위요인에 관련된 신뢰도를 구한 것으로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는 .65~.80인 것으로 나타나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에 관련된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에 관련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인 신뢰도 분석의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2) 기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만 3-6세 유아용 기질 및 성격 검사 JTCI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도구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인용 기질 및 성격검사 Temperament und Character Inventory(TCI) 및 Junior Temperament und Character Inventory(JTCI) 청소년용(12-18세)의 후속 형태로 만 3-6세의 유아용으로 만들어졌다. 한국형 기질 및 성격검사 3-6세 또한 Cloninger의 생물학적 이론을 토대로 최초로 구성

된 미국의 Preschool TCI (Constantino, Cloninger, Clarke, Hashemi & Przyb, 2002)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55개 문항으로 구성된 기질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기질에 관련된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민감성”, “인내력”의 4가지 상위요인에 관련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6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적응행동

본 연구대상 유아의 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승국(1990)의 적응행동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적응행동 검사도구는 유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립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기술과 습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로, 원래는 21개 영역의 95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 유아의 적응행동에 적합한 문항들만 사용하여, 9개의 행동영역(독립기능, 신체 발달, 경제활동, 언어발달, 수와시간, 직업전활동, 자기관리, 책임, 사회화) 총56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적응행동 측정도구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1.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서는 유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기질과 적응행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이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II. 결과

1. 기초분석 결과

본 분석에 앞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변인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우선, 유아의 기질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점까지였으며, 자극추구의 평균은 1.21(SD=.50), 위험회피의 평균은 1.17(SD=.49)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민감성은 평균 1.73(SD=.42), 인내력은 평균 1.80(SD=.46)이었다. 한편, 유아의 적응행동인 경우 58

<표 2>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356)

변 인		범위	M	SD
유아의 기질	자극추구	.13~2.53	1.21	.50
	위험회피	.00~2.81	1.17	.49
	사회적 민감성	.50~2.92	1.73	.42
	인내력	.42~2.92	1.80	.46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2.83~4.92	3.90	.44
	거부적 태도	1.25~4.08	2.81	.42
	자율적 태도	2.42~4.67	3.47	.40
	통제적 태도	2.25~4.67	3.58	.43
유아의 적응행동		58.00~136.00	103.13	12.87

점부터 136점까지 넓은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103.13 (SD=12.8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경우, 1점에서 5점까지의 가능한 점수 범위 중 애정적 태도의 평균이 3.90(SD=.44)으로 다른 변인들보다 높은 편이었고, 거부적 태도의 평균이 2.81(SD=.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율적 태도는 평균 3.47(SD=.40), 통제적 태도는 평균 3.58(SD=.43)로 나타났다.

2. 주요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 전체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기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과 연령이 각각 적응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23, p < .001$ ;  $r=.18, p < .001$ ). 즉 여아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은 유아일수록 적응행동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유아의 적응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r=.14, p < .01$ ), 비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더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32, p < .001$ ;  $r=-.31, p < .001$ )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17, p < .01$ ;  $r=.36, p < .001$ )를 나타내었다. 즉 적응행동을 잘하는 유아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낮으며, 민감성과 인내력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 자율,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30, p < .001$ ;  $r=.34, p < .001$ ;

〈표 3〉 전체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 (N=35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성별	-														
2. 연령	.00	-													
3. 취원기간	.00	.07	-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4. 연령	-.02	-.00	.09	-											
5. 교육수준	-.01	-.04	.02	.13**	-										
6. 취업유무	.01	.08	-.19***	-.17**	-.03	-									
유아의 기질															
7. 자극추구	-.17**	-.00	.05	-.06	-.03	.03	-								
8. 위험회피	-.01	.01	.05	.09	.00	.02	.20***	-							
9. 사회적 민감성	.11*	-.08	.06	-.07	.12*	-.01	.24***	-.08	-						
10. 인내력	.01	-.05	.01	-.03	.06	-.03	-.38***	-.23***	.19***	-					
어머니의 양육태도															
11. 애정태도	.07	-.14**	.02	-.10	.08	.07	-.21***	-.23***	.29***	.30***	-				
12. 거부태도	.04	.14**	.02	.01	-.05	.07	.36***	.25***	-.06	-.20***	-.46***	-			
13. 자율태도	.02	-.10	.07	.00	.11*	-.02	-.20***	-.43***	.24***	.26***	.47***	-.36***	-		
14. 통제태도	.03	.00	.05	-.03	-.08	.03	.07	-.09	.15**	.15**	.22***	.17**	.12*	-	
유아의 적응행동															
15. 긍정적 적응행동	.23***	.18***	-.06	-.03	.08	.14**	-.32***	-.31***	.17**	.36***	.30***	-.26***	.34***	.13*	-
M	1.44	5.30	2.99	35.21	1.65	1.61	1.21	1.17	1.73	1.80	3.90	2.81	3.47	3.58	103.13
SD	.50	.74	1.67	5.02	.86	.49	.50	.49	.42	.46	.44	.42	.40	.43	12.87

\*p<.05, \*\*p<.01, \*\*\*p<.001

r=.13, p<.05), 거부적 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26, p<.001). 즉 적응행동을 잘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애정적, 자율적, 또는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덜 거부적인 경향이 있었다.

한편, 〈표 3〉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 몇몇 기질의 하위영역들, 유아의 적응행동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2) 남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남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남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

우선, 남아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취업유무가 남아의 적응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7, p<.05). 즉, 어머니가 비취업모인 경우 자녀가 적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기질과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8, p<.001; r=-.40, p<.001)를,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14, p<.05; r=.37, p<.001)를 나타내어, 자극추구 또는 위험회피 성향이 낮고, 사회적 민감성

또는 인내력이 높은 남아일수록 긍정적 적응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남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적응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 자율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37, p<.001; r=.34, p<.001), 거부적 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35, p<.001). 즉 어머니가 애정적 또는 자율적이며, 거부적이지 않을수록 남아가 긍정적 적응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여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여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

다음으로 여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여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여아의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우선, 여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아의 연령이 적응행동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28, p<.001). 즉, 연령이 많은 여아일수록 적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기질과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30, p<.001; r=-.20, p<.05)를, 인내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6, p<.001)를 나타내어, 자극추구 또는 위험회피 성향이 낮고, 인내력이 높은 여아일수록 더 많은 적응행동을

〈표 4〉 남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남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남아의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 (N=19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													
2. 취원기간	.13	-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3. 연령	.02	.09	-											
4. 교육수준	-.04	.04	.18*	-										
5. 취업유무	.10	-.14*	-.21**	.02	-									
유아의 기질														
6. 자극추구	.12	-.04	-.11	-.11	.07	-								
7. 위협회피	.01	.05	.10	-.07	.01	.32***	-							
8. 사회적 민감성	-.21**	.06	-.08	.21**	-.01	.27***	-.04	-						
9. 인내력	-.15*	.04	-.09	.13	.04	-.35***	-.24**	.21**	-					
어머니의 양육태도														
10. 애정태도	-.15*	.02	-.09	.09	.14	-.22**	-.30***	.29***	.28***	-				
11. 거부태도	.14*	.00	-.07	-.06	.03	.38***	.34***	-.10	-.17*	-.50***	-			
12. 자율태도	-.16*	.14	.04	.20**	-.06	-.24**	-.46***	.25***	.27***	.49***	-.42***	-		
13. 통제태도	.00	.10	-.12	-.08	.07	.07	-.09	.18*	.17*	.32***	.07	.11	-	
유아의 적응행동														
14. 적응행동	.11	-.04	-.05	.08	.17*	-.28***	-.40***	.14*	.37***	.37***	-.35***	.34***	.12	-
M	5.30	2.99	35.29	1.66	1.61	1.28	1.18	1.69	1.80	3.87	2.80	3.46	3.57	100.54
SD	.73	1.66	5.59	.89	.49	.47	.51	.43	.44	.47	.42	.40	.45	13.20

\*p<.05, \*\*p<.01, \*\*\*p<.001

〈표 5〉 여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여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여아의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 (N=15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													
2. 취원기간	-.01	-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3. 연령	-.03	.09	-											
4. 교육수준	-.04	-.00	.06	-										
5. 취업유무	.05	-.24**	-.13	-.09	-									
유아의 기질														
6. 자극추구	-.14	.15	.01	.05	.00	-								
7. 위협회피	.00	.05	.06	.10	.03	.06	-							
8. 사회적 민감성	.09	.05	-.04	-.00	-.01	.26**	-.15	-						
9. 인내력	.07	-.02	.06	-.02	-.10	-.42***	-.22**	.17*	-					
어머니의 양육태도														
10. 애정태도	-.13	.01	-.12	.05	-.02	-.17*	-.12	.28***	.34***	-				
11. 거부태도	.15	.04	.13	-.04	.12	.36***	.13	-.01	-.23**	-.41***	-			
12. 자율태도	-.02	-.01	-.05	.00	.03	-.16	-.38***	.23**	.25**	.44***	-.29***	-		
13. 통제태도	.00	-.01	.11	-.07	-.04	.09	-.08	.11	.12	.06	.29***	.14	-	
유아의 적응행동														
14. 적응행동	.28***	-.08	.02	.08	.10	-.30***	-.20*	.15	.36***	.18*	-.17*	.35***	.12	-
M	5.30	2.99	35.12	1.65	1.62	1.11	1.17	1.79	1.81	3.94	2.83	3.48	3.59	106.41
SD	.76	1.70	4.28	.83	.49	.51	.47	.42	.49	.41	.43	.39	.42	11.66

\*p<.05, \*\*p<.01, \*\*\*p<.001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여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 자율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18, p<.05; r=.35, p<.001$ ), 거부적 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17, p<.05$ ). 즉 어머니가 애정적 또는 자율적이며, 거부적이지

않을수록 여아가 긍정적 적응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표 4>와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적응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남아와 여아의 경우 서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적응행동과 관련되어, 어머니가 비취업 모인 경우 취업모에 비해 남아가 더 많은 적응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연령은 여아의 경우에만 적응행동과 관련되어, 여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비교적 더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3. 유아 변인 및 어머니 변인이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1)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유아 변인(성별, 연령, 수업년간, 기질) 및 어머니 변인(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양육태도)이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러 변인들 가운데, 위에서 살펴본 상관관계 분석에서 적응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들만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서는 2.00로 자귀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

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투입 순서는 첫 번째로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고,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였다. 세 번째 변인으로는 유아의 기질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을 투입하였다.

우선, 유아 및 어머니 관련 변인이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이 유아의 적응행동을 약 9%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취업유무)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적응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10%로 증가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 변인(자극추구, 위협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을 추가한 결과 적응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23% 증가하여 33%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애정, 거부, 자율, 통제)를 추가하여 유아와 어머니의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적응행동을 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유아의 적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연령( $\beta=.23, p<.00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성별( $\beta=.19, p<.001$ ), 유아의 기질 가운데 인내력( $\beta=.19, p<.001$ ), 어머니의 취업유무( $\beta=.14, p<.01$ ), 자율적 양육태도( $\beta=.14, p<.01$ ), 유아의 기질 가운데 자극추구( $\beta=-.14, p<.05$ ),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beta=-.13, p<.05$ ), 유아의 위협회피( $\beta=-.13, p<.01$ )의 순으로 유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인내력이 높을수록, 자

<표 6> 전체 유아 변인 및 어머니 변인이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356)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5.91	.23***	5.88	.23***	4.39	.17***	4.87	.19***
연령	3.22	.18***	3.06	.17**	3.44	.20***	3.98	.23***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취업유무			3.27	.12*	3.69	.14**	3.70	.14**
유아의 기질								
자극추구					-5.39	-.21***	-3.53	-.14*
위협회피					-5.51	-.21***	-3.44	-.13**
사회적 민감성					4.74	.16**	2.72	.09
인내력					5.84	.21***	5.23	.19***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94	.03
거부적 태도							-3.95	-.13*
자율적 태도							4.55	.14**
통제적 태도							1.97	.07
R <sup>2</sup>	.09		.10		.33		.37	
$\Delta R^2$	.09		.02		.23		.04	
F	16.41***		13.06***		23.83***		18.08***	

\*p<.05, \*\*p<.01, \*\*\*p<.001



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덜 할수록, 어머니가 자율적인 태도가 높고, 거부적인 태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인 경우 유아가 더 많은 적응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한편, 앞에서의 상관분석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적응행동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와 여아의 적응행동 관련 변인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 및 어머니 변인들이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서로 다를 것으로 가정되어, 위와 같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적응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들만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으며,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아의 경우, 적응행동의 회귀분석에서는 1.82, 여아의 경우, 적응행동의 회귀분석에서는 2.02으로 자귀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남아 변인 및 어머니 변인이 남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아 및 어머니 관련 변인이 남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취업유무)이 긍정적 적응행동을 3% 설명하였으며, 유아의 기질(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적응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26% 증가하여 29%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애정, 거부, 자율, 통제)를 추가하여 유아와 어머니의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적응행동에 대한 설

명력이 4% 증가하여 총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남아의 적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위험회피( $\beta = -.22, p < .01$ )였으며, 다음으로 유아의 인내력( $\beta = .21, p < .01$ ), 어머니의 취업유무( $\beta = .17, p < .01$ )가 남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위험회피 성향이 적을수록, 인내력이 높을수록,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인 경우 남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2) 여아 변인 및 어머니 변인이 여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여아 및 어머니 관련 변인이 여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이 적응행동을 9% 설명하였으며, 유아의 기질(자극추구, 위험회피, 인내력)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적응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15% 증가하여 23%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애정, 거부, 자율)를 추가하여 유아와 어머니의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적응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6% 증가하여 총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여아의 적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연령( $\beta = .27, p < .001$ )이었으며,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 $\beta = .26, p < .01$ )와 인내력( $\beta = .21, p < .05$ )의 순으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자율적 태도를 지닐수록, 유아의 인내력이 높을수록 여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7> 남아 변인 및 어머니 변인이 남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199)

독립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취업유무	4.70	.17*	4.87	.18**	4.61	.17**
유아의 기질						
자극추구			-4.61	-.16*	-2.23	-.08
위험회피			-7.53	-.29***	-5.67	-.22**
사회적 민감성			4.26	.14*	1.98	.06
인내력			6.25	.21**	6.23	.21**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2.29	.08
거부적 태도					-4.56	-.14
자율적 태도					2.04	.06
R <sup>2</sup>	.03		.29		.33	
$\Delta R^2$	.03		.26		.04	
F	6.00*		15.51***		11.32***	

\*\*p<.01, \*\*\*p<.001

〈표 8〉 여아 변인 및 어머니 변인이 여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157)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4.54	.29***	3.92	.25**	4.18	.27***
유아의 기질 자극추구			-3.63	-.16*	-2.85	-.13
위험회피			-3.35	-.14	-1.05	-.04
인내력			5.81	.24**	4.97	.21*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40	-.01
거부적 태도					-.99	-.04
자율적 태도					7.92	.26**
R <sup>2</sup>	.09		.23		.29	
$\Delta R^2$	.09		.15		.06	
F	14.32***		11.64***		8.86***	

\*p&lt;.05, \*\*p&lt;.01, \*\*\*p&lt;.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특성 변인 중 특히,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심으로 유아의 적응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 유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적응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아의 기질과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낮을수록, 또한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높을수록 유아는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질과 적응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밝히고 있지 않다. 활동성 및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밝힌 결과들(김영희, 1996; 임말자, 최경순, 2003; 홍계옥, 2001)이 있는 반면 활동성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밝힌 결과도 있다(Klein, 1982; Parker-Cohen & Bell, 1988). 이러한 기질과 적응행동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이나 기질을 측정하는 주체와의 상호작용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측정하는 주체가 부모이기 때문에 기질에 대한 부모의 지각은 부모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가치가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잘 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 즉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얼마나 조화로운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응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적 특성 및 적응행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아의 적응행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어머니들이 애정적, 자율적, 덜 거부적인 경향을 보일수록 유아들이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적응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김선희, 김경연, 1999; 문혁준, 2000; 이경주, 신효식, 1998; 조복희, 양연숙, 김아이, 정미자, 광혜정, 한유미, 1997; Mattanah, 2001; Steinberg & Dornbusch, 1991).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며 자녀에 대해 칭찬, 격려 등의 강화를 많이 사용하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대체로 유아의 사려성, 이타성 및 낮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보다 관대하며 협동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Belsky(1990)의 연구결과와 수용적, 애정적, 민주적,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사회화 및 타인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임연진(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유아의 취원기간과 적응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치원 적응행동에는 이전의 교육경험과는 무관하다고 보고한 몇몇 연구결과(Brown & Hunt, 1961; Marturano, 198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학급크기 등 교육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기간이나 수업년한과 적응행동 간의 관련성을 논의 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함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유아교육기관의 높은 질적 수준이 유아의 사회성 및 적응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Aureli & Procacci, 1992; 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과 유아교육기관의 높은 질적 차원의 중요한 요소로 교사-유아간 상호작용이라는 Belsky(1990)의 주장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서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 유아의 취업기간, 유아적응행동의 역동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유아 및 어머니 관련 변인이 유아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성별, 유아의 기질 가운데 인내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자율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가운데 자극추구, 위협 회피의 순으로 유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인내력이 높을수록, 자극추구 성향이 덜 할수록, 어머니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인 경우 유아가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아의 긍정적 적응행동을 가장 잘 예견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유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성별)을 포함한 기질적 특성(인내력)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육현장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아의 기질은 유아가 지니는 선천적인 특징으로서 본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행동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미 존재하는 유아의 기질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유아가 교육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인내력이 떨어질수록 적응행동이 어렵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부모나 교사는 인내력이 약한 유아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기 보다는 유아의 특성으로 인정하고, 대신 유아가 인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선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후천적인 교육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장영숙, 조정에, 2000).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할 결과 전반적으로 서로 비슷한 관계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성별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몇 가지 연구결과에 주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상관관계분석결과에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유무가 적응행동과 관련되었는데, 즉 어머니가 비취업모인 경우 취업모에 비해 남아가 더 많은 적응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아의 연령은 여아의 경우에만 적응행동과 관련되어, 여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적응행동 간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비교적 더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적응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아는 위협회피 성향이 낮거나, 인내력이 높은 경우, 또는 어머니가 비취업모인 경우에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어머니가 자율적 태도를 지녔거나, 여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또는 인내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적응행동을 보였다. 즉, 남아의 경우 여아와 달리 연령이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 연구결과는 유아의 적응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요인이 적응행동의 촉진 또는 억제 역할을 하는 가를 구체적이면서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관련 특성변인이 유아의 적응행동예측에 있어서 어머니 관련 변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지만, 어머니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음을 짐작케 한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대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특정 지역만 선정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유아의 적응행동측정도구로는 부모용 평정척도만을 사용하였기에 부모의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기관의 질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좀더 다양하게 유아교육 및 보육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유아의 적응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기관내 유아의 적응행동에 초점을 두고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평가나 관찰법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 유형(유치원 대 어린이집)을 통제하지 않고 표집했고, 유아의 취업 기간의 범위도 2년 이하에서 7년 이하까지 넓은 범위의 대상이 선정되었다. 기관 유형과 취업 기간, 이 두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아의 적응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통제하여 표집하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적응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이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아의 생득적 요인인 기질, 외부 환경적 요인 그리고 유아의 적응행동

과의 관련성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중단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명순(1997).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유치원 현황 통계.
- 권일선(1995).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영, 신유림(2001).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 145-161.
- 김미라(1995).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 이재신(2004). 어머니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연구*, 24(5), 145-166.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승국(1990). *적응행동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32.
- 문혁준(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박은미(1995). 유치원교육연한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조망 수용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숙(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 송진숙, 권희경(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25.
- 신기철(1999). 아동의 유치원 취원 기간과 초등학교 적응행동과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희(2002). 유아의 유치원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1), 201-219.
- 여성가족부(2006). 200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2002). 조절력과 부정적 정서 및 문제 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61-68.
- 유우영, 이 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간관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주, 신효식(1998).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126, 39-50.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선(1994).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및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5(2), 117-128.
- 이희영(2001).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유치원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말자, 최경순(200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1), 189-207.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장영숙, 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 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 조복희, 양연숙, 김압이, 정미자, 곽혜정, 한유미(1997).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6), 249-259.
- 조혜진, 이기숙(2004).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24(4), 263-284.
- 현은강, 이현정(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67-179.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2-14.
- Aureli, T., & Procacci, M. A. (1992). Day care experience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3, 45-54.
- Bates, T. E., Maslin C. A., & Frankel, K. A. (1985).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ratings at age three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Child Development*, 209(50), 167-86.
- Belsky, J. (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85-903.
- Brown, A. W., & Hunt, R. G. (1961). Relations

- between nursery school attendance and teachers' ratings of some aspects of children's adjustment in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32, 585-96.
- Constantino, J. N., Cloninger, C. R., Clarke, A. R., Hashemi, B., & Przybeck, T. (2002). Application of the seven-factor model of personality to early childhood. *Psychiatry Research*, 109(3), 229-43.
- Howes, C., Phi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 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Hurlock, E. (1987). *Child development* (6th Ed.). NY: McGraw-Hill.
- Klein, H. A. (1982).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Head Start. *The Journal of Psychology*, 112, 259-68.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Marturano, E. M. (1981). Development of complex patterns of behavioral orientation to social and physical stimuli in kindergarten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1, 186-97.
- Mattanah, J. F. (2001). Parental psychological autonomy and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More than just limit-setting and warmth. *Merrill-Palmer Quarterly*, 47, 355-376.
- Parker-Cohen, & Bell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92.
- Rubin, K. H., Burgess, K. B., & Dwyer, K. M.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164-176.
-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haw, D. S., Keenan, K., & Vondera, J. I. (1994).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Ages 1 to 3.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55-364.
-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Negative correlates of part-time employment during adolescence: Repl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304-313.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2006년 2월 28일 접수, 2006년 4월 13일 채택)